



7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경봉선사 다례제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3000여 사부대중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경봉 스님의 법향과 가풍이 깃든 극락암 삼소굴에서의 생전 모습.

“시주 무서워 하라”... 가르침을 거울 삼겠습니다

통도사, 7월 16일 경봉 선사 탄신 120주기, 열반 30주기 다례제 봉행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다가 눈 앞에서 바로 주인공을 보았네. 하하 웃고 서로 만나 의혹이 없어지니 우담발바 꽃 빛이 법계에 흐르네”

7월 16일 오전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 크게 걸린 스크린에는 법문하는 경봉 스님의 생전 모습이 비쳤다.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기리는 다례제에 모인 추모객들은 마치 살아 돌아온 듯 생생한 그 모습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설법전에 가득 울려 퍼지는 스님의 일성은 설법전을 가득 메운 3000여 대중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날 모인 대중들은 극락암 삼소굴에서 엄격하면서도 검소한 수행가풍을 후학들에게 보여준 경봉 스님의 행화를 따르기를 발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수행가풍을 바로세운 큰 스승, 경봉선사 탄생 120주년과 열반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다례제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초우 월파 월탄 암도 정연 스님 등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총무원장 자승,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의 스님들이 운집했다. 나동연 양산시장과 지역 불자 등을 합하면 3000여 명이 참석했다. 30년동안 극락암에서 열리던 추모법회는 이날 많은

대중으로 인해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옛 조사(祖師)의 살림살이를 들어 금일 경봉대선사 영전(影前)에 법향(法香)을 올린다”며 “주고 빼앗는 자재의 기쁨을 갖춘 이가 몇몇이나 될꼬(여탈타재능기 與奪自在能幾幾)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으로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자기에게 추상 처럼 대하라”
“공부 안되나, 차한잔 마셔”

다(천상인간무등필 天上人間無等四)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경봉 대종사의 30주기를 맞아 큰 스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지금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한”이라며 “치열한 구도행을 후학들의 수행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추모했다.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남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대하고, 스스로 자

숙할 땐 추상(秋霜, 가을의 찬 서리)같이 하라.” 평소 경봉 스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일러준 가르침이다. 보리밥과 죽순나물로 대변되는 삶을 산 스님에 대한 후학들의 회고는 엄격하면서도 그 안에 검소하고 따뜻한 가르침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왔다.

극락암 삼소굴 가풍 ‘검소’
詩書畫禪茶 즐긴 오절
통도선문화재단 건립 추진

극락암 호국선원에서 경봉 스님 회상에서 정진했던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백척간두에 서있고 진퇴양난에 빠져 물을 것조차 없었던 터에 ‘공부가 안되네가. 차나 한잔 마셔’란 스님의 파스한 말씀이 떠오른다”며 스님을 그리워했다. 문도 대표로 나선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항상 시주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검소한 생활에도 소요자재한 경지를 펼쳐셨다”고 스님을 떠올렸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이 향을 올리고 있다.



정수환 화가가 기증한 영정그림



종정 진제 스님이 추모 법어를 하고 있다.



통도사 성보 박물관서 열리는 ‘삼소굴’ 특별전을 둘러보는 스님들. 특별전은 9월 23일까지 열린다.



이날 극락암에는 다례제 이후 스님을 추모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www.buddhabook.co.kr

불교서적, 불교용품, 명상음반

붓다북
Click!!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